

한라시론



민 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대학시절 좋아했던 외국 여배우 리스트 중 톱(Top)은 단연코 잉그리드 버그만이였다. 흑백영화인 카사블랑카에서 그녀를 처음 접했고,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들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종은 낭만적인 여운을 갖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저 종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가'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도

한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전망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단간 혐오를 묵도하면서, 두 달 후 있을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난무하는 네거티브의 소용돌이를 경합하며 영화 제목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된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G7국가에서 G5 국가로 도약이 잡혀지고 있다. 하지만 근자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나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모범 사례 국가라는 찬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심각한 출생률 저하에도 노키즈 존이 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는 3만 건이 넘고 있다. 경제성장의 이익을 담당한 노인층에 대한 학대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착취물, 혐오적 연사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무한히 유통되는 중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이런 문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적 감정이나 편견은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결합돼 증폭되곤 한다. 전쟁 시, 경제불황 시, 또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등 외부의 위협이 증가할 때 특정 집단을 사회적,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위협과 조롱은 그 집단에게만 조종(弔鐘)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공격하는 집단에게도 동일한 종을 울리게 된다. 이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구성원 모두가 사실상 연결돼 있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뒤집어본다면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그동안의 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의 결실은 비장애인이나

나 성인, 남성들에게도 확산된다는 점에서 상호간 얼마든지 기쁨의 종이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비장애인이거나 아동, 노인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가족휴가제도가 남녀 공히 사용될 수 있게 되고, 여성에게는 일하는 기쁨을, 남성에게는 육아의 보람을 알게 한 제도적 발전도 상호간 즐거운 종을 울리게 한 결과이다. 이제 대한(大寒)이 지나고 절기의 최초 시작점이며 새해를 상징하는 입춘이 다가오고 있다. 입춘을 계기로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고, 지난 시간의 일들은 거두고, 차가운 땅 속에서 머리를 빼죽이 내릴 새싹 같은 희망을 기대한다. 입춘년 을 해 서로에 대한 포용과 평안의 종소리를 울릴 것을 염원한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해 울리게 하는 것이므로.

편집국 25시

삶의 무게



이 상 민  
정치부 기자  
hasm@ihalla.com

대학 시절 전공서적을 사면 '이게 내 삶의 무게이겠구나' 하며 재량껏 값어치를 매겼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본 기자의 삶은 전공서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사회를 비판하고, 때론 누군가를 검증해야 하는 일이 부에 넘치기도 했거니와 누군 비판할 만큼 내 삶이 뜻밖에도 없었다. 지금껏 이 일을 하는 건 그 무게를 견뎌낼 정도로 견고하고 단단해져서가 아니다. 나는 어느덧 직업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생계만 좇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마다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거 행적과 발언, 가족

사생활까지 검증의 영역엔 성역이 없다. 그 검증이 네거티브 일색이라도 대통령 후보라면 이 과정을 오히려 견뎌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무게가 매일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이걸 견뎌낼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대통령을 포기하는 게 낫다. 대선이 임박하니 각 후보 진영은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00위원회 출범, 누구 합류, 누구 영입 등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소식에 그 면면을 살피기 벅하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쫓고 있지만 그 목표가 다 같은 모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는 또 한자리를 뚫어고, 누군가는 또 다른 선거를 준비한다. 그 중에는 내 삶의 무게를 나눠 갖겠다는 이도 있고, 그저 자리만 바라는 생계형도 있을테니 남은 기간 이 둘을 어떻게 분간할지가 숙제다. 이제 한 달 뒤면 우리는 투표장에 모인다. 현명한 선택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혼탁한 정치 상황에서 는 더욱더 유권자의 어깨가 무겁다.

뉴스-in

교육감선거 도전자들 한자리에 모였다

고창군 등 4명 단일화 논의 시동 "설 연휴 긴장감 갖고 근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이석문 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맞설 도전자들이 단일화 논의에 시동을 걸면서 눈길. 앞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창군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전 제주제일고 교장을 비롯해 교육감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김장영·김창식 현 교육의원 등 4명은 26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만나 단일화와 관련 의견을 교환. 도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따르면 이날 큰 틀에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설 연휴가 끝난 후 논의할 예정으로, 추후 단일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오은지기자

사설

청년들이 떠나는 '제주의 미래' 걱정된다

제주에는 매력적인 곳임에 틀림 없다. 대한민국 관광1번지라는 명성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제주를 꼽는다. 실제로 작년 한해 제주로 4000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20대의 경우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아 1500명 가까이 순유출됐다는 사실이다. 젊은층의 제주 탈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제주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3917명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작년 순이동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20대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순유입됐다. 특히 20대 인구는 작년 1471명이 순유출돼 2007년(2134명)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인구는 2018년 145명이 순유출 후 2019년 1029명, 2020년 1178명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제주에 살기 위해 유입되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정작 젊은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있어 안타깝다. 젊은이들이 왜 제주를 떠나갔는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가 조사해 발표한 '2021 제주 사회 지표'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일자리' 부문이 낙제점을 받았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1.0%에 달했다. 도민 절반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바로 젊은이들이 제주를 외면하는 이유다.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난리에 과태료 '폭탄', 납득되나

올해 버스차로 통행위반시 즉시 처벌체계로 바뀌자 운전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당면 코로나19 시국 생존위기에 처한 도민 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 차로제가 작년까지 시행한 제도나 경고 이후 과태료 부과조치에서도 일정 효과를 거두는 상황 아니냐는 힐난도 쏟아진다. 제주시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 집계결과 총 678건에 달했다. 지난해 549건에 비해 129건 증가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윤택해져 한 차례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라는 강경 조치 탓이다. 차로별로는 중앙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와 공항구간(인 경우) 작년 63건에서 15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가로변차로(무수천-국립박물관)는 지난해 486건에서 52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도로정체로 단속구간을 모른 채 진입하거나, 한 차례 위반도 단속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강경 단속조치가 시기에 적절했느냐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를 공동체 일체 한 판국이다. 거기가 행정의 각종 재정·세정 지원에도 아우성인 상황이다. 시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 예고를 했다지만 '면피'될 수 없다. 더욱이 버스전용차로제 구간 1, 2차 계도·경고 후 3차 위반시 처벌에도 기대이상 지켜졌고, 일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인 못한다. 행정행위는 시의성·적절성을 충족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힘겨운 '코로나19 나기'를 옥죄는 요인이어서 결코 안된다. 시민들이 과태료 5만~6만원에 울고 웃는 해 486건에서 526건으로 소폭

부 고
김성은 아버지 김해김공 두행(국가유공자·前종달초등교장·화북1동 청풍노인정 2.3.4대 회장·향년 97세)께서 서기 2022년 1월 25일 17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월 27일(목요일)
▶발인일시: 2022년 1월 28일(금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국립 제주 호국원
아 들 김 성 수(倣) 머느리 김 성 희
성 은
성 흥(倣)
딸 김 순 덕 사 위 송 병 현
순 옥(倣) 김 의 현
순 효 조 중 락
※ 연락처 : 김순효 010-2484-8877

부 고
제주 성내교회 고성숙 원로권사(제주YWCA 8대회장, 향년 95세)께서 서기 2022년 1월 25일 08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및 장례예배: 2022년 1월 28일(금요일) 오전 10시
▶발인장소: 제주 성내교회
▶장 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아 들 김 의 석 머느리 이 은 주
원 석 최 승 주
딸 김 정 심 사 위 신 광 범
영 심
정 현 나 춘 식
※ 연락처 : 김원석 010-4205-3969 이정훈 010-2006-0675

부 고
양은석(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버지 제주양공 시옥(前 중등교장·향년 89세)께서 서기 2022년 1월 24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월 28일(금요일)
▶발인일시: 2022년 1월 29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어머리 선영
아 들 양 은 석 머느리 지 연 희
은 호 박 정 민
은 전 강 진 희
은 수 오 지 희
딸 양 순 희 사 위 소 원 옥
은 애
※ 연락처 : 양은석 010-9741-8097 소원옥 010-5691-0285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월 26일 임시조합원 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성불오름"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성불오름 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577-1
대표조합원 송성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성장진흥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